# 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김천 아포읍서 농촌 일손 돕기

김철희 기자 | 승인 2026.11.06 11:11

## 수확철 인력난 겪는 국사리 농가 지원




일손돕기 후 기념촬영 하는 직원들 모습. 사진=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제공

[구미(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경북 구미김천지사는 지난 4일 경북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의 한 농가에서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봉사는 농산어촌 행복충전활동의 하나로, 농업 인력 감소로 수확철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구미김천지사 직원 17명이 현장을 찾아 수확기 작업에 일손을 보탰다. 지사는 수확기에 작업이 몰리는 지역 내 농가의 인력난을 덜고 영농 부담을 줄이는 데 이번 활동의 초점을 맞췄다.

구미김천지사는 매년 농산어촌 행복충전활동을 통해 영농도우미,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복지시설 지원, 재해복구 등 지역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평소에는 영농 지원과 농촌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고, 지역 복지시설을 지원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곳의 복구 작업에도 참여한다.

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chk1500@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